

석사학위논문 작성지침

1. 논문이란?

1. 논문의 정의

논문이라 함은 '어떤 문제에 관하여 학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한다. 좀더 단순히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감상문이나 자신의 주의 주장을 담은 논설문이나 선언문 등과 구별된다.

2. 학문적 방법

여기서 '학문적인 방법'이라 함은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과 개념요소를 포함한다. 즉, 첫째로 문제의 확정 및 연구계획 단계, 둘째로 이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포함하는 관련정보에 대한 수집과 검토 단계, 셋째,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의 진행단계, 넷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 단계, 다섯째,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셋째와 넷째 단계가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핵심적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학문적인 연구방법론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실험실습, 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논리적 추론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3. 논문의 요건

학술논문은 학문적 방법을 통하여 어떤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논문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확성과 치밀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연구방법에서부터 문장의 표현, 자료의 인용 등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둘째,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논문은 주관적인 요소가 가급적 배제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도록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서 연구방법론이 중시되는 것이다.

셋째, 검증성 또는 재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무엇인가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자료나 연구방법, 관점, 해석 또는 결론 중 어느 것에서든지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논문의 독창성이 인정된다.

이밖에 윤리성이나 평이성 등을 논문의 요건으로 드는 견해도 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글은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재편집한 글, 개인적인 견해를 학문적 방법론에 입각한 입증과정이 없이 주장한 글, 남의 주의나 주장을 인용 또는 비판 없이 수용 소개한 글 등은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남의 주의 주장을 정확한 인용 없이 자신의 글 속에 포함시키게 되면 표절이라고 하여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II. 논문의 체제와 구성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장 학위논문 제25조에 따른 논문 작성 체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심사용 논문

가. 최종 제출 논문의 체제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정서, 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복사본 3부를 제출한다.

2. 최종 논문 제출

가. 최종 논문은 소프트커버 5부(원본:1부, 제본:5부) 및 디스켓 1매를 제출한다.

. 논문 파일은 도서관 E-mail로 제출(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ulsan.ac.kr](http://library.ulsan.ac.kr))

3. 논문 작성 체제

가.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 및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국문 및 해당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논문의 일반 체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판 종 : A4 (210×297mm)

(2)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 : 공판, 활판, 사식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하며, 양면 또는 단 면으로 인쇄한다.

(4) 표지 색 : 소프트커버는 베이지색으로 하드커버는 검정색(금박)으로 한다.

(5) 제본형식 : 크로스 양장

(6) 표지인쇄 : 별지 서식1 에 따른다.

라.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 : 별지 서식 1

- (2) 속 표 지 : 별지 서식 2
- (3) 인 준 지 : 별지 서식 3
- (4) 감사의 글(생략할 수 있음)
- (5) 국문요약 : 3페이지 이내
- (6) 목 차
- (7) 표 목 차 (있을 경우)
- (8) 그림목차 (있을 경우)
- (9) 본 문
- (10) 참고문헌
- (11)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12) 외국어 초록(Summary) : 3페이지 이내

III. 논문의 양식

1. 계층기호의 사용

가. 본문차례

논문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작성하되 효과적인 논리전개를 위하여 단락을 나누어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제목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데 이에 사용하는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한다.

1단계 : I, II, III ...

2단계 : 1, 2, 3 ...

3단계 : 가, 나, 다 ...

4단계 : 1), 2), 3) ...

5단계 : 가), 나), 다) ...

6단계 : (1), (2), (3) ...

나. 표와 그림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 , [그림 1] ...

다. 쪽번호

논문의 차례(목차)부터 시작하여 표차례, 그림차례까지는 아래 부분에 -i-, -ii-, -iii-(로마자 숫자 소문자) 등으로 표기하고, 논문 본문은 서론부터 -1-, -2-, -3-...으로 표기한다.

2. 주(註) 달기

가. 주란 무엇인가 ?

논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참고문헌이나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면 논문작성자는 자신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주장 이외에 남이 이미 주장한 내용들을 논문에 사용할 때에는 모두 주를 달아서 그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되어 논문의 신뢰성을 훼손함은 물론 심할 경우 범죄행위로까지 취급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내용이나 만고의 진리 같은 내용은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사항을 본문의 흐름과 별도로 논문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주(註)라고 한다.

주는 첫째, 인용사실을 밝히고, 둘째, 남이 이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반복을 피하고 셋째, 본론의 전개에 직접 필요하지는 않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에는 각주(脚註), 후주(後註) 또는 미주(尾註), 두주(頭註), 내주(內註)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주와 후주가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내주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나 참고문헌에서 소개하는 문헌들을 표기하는 방법은 논문의 저자와 독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약속이므로 학문분야에 따라 또는 학교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정한 양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 이 양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권장사항이며, 각 전공에 따라 서로 다른 논문의 양식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註) 다는 요령

1) 주는 전공에 따라 각주 또는 내주를 사용하되 처음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각주의 경우

가)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되 모든 사항은 쉼표(,)로 구분한다.

- 단행본의 경우 : 주번호, 저자이름, 책이름, 출판장소, 출판사이름, 발행년도, 인용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 논문의 경우 : 주번호, 저자이름, 논문제목, 게재지이름, 권.호, 발행년도, 인용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나) 주번호는 반괄호 안에 기입한다. (예: 1), 2) ...)

- 다) 단행본의 책이름과 논문의 게재지 이름은 동양서일 때에는 이중 꺾쇠(『』) 안에, 서양서일 때에는 부호 없이 이탤릭체로 기입한다.
- 라) 논문제목은 인용부호(“ ”) 안에 기입한다.
- 마) 권(Vol.), 호(No.)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권·호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호수는 괄호 안에 기입한다. (예: 교육학연구 제40권 제4호일 경우 --40(4)로 표기)
- 바) 단행본의 출판사항(출판장소, 출판사이름, 발행년도)과 논문의 발행년도는 괄호안에 기입하고 출판장소 다음에는 쌍점(:)을 찍는다. 괄호 앞에는 쉼표를 표기하지 않는다. (예: 서울: 학지사, 2002.)
- 사) 서양서의 저자이름은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한다.
- 아)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동양서)이나 &(서양서)로 구분하며, 저자가 4인 이상인 때에는 동양서의 경우 대표저자 한사람만 소개하고 그 뒤에 ‘○○○외’라고 표기하며, 서양서인 경우에는 대표저자 뒤에 ‘et al.’로 표기한다. (예: 이형행·고전 / 윤정일 외 / Hoy, W. K. & Miskel, C.G. / Anderson et. al.)
- 자) 한 각주 안에 인용한 문헌들이 여럿인 때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차) 이미 한번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저자이름 이후 부분은 전개서, 전개 논문, *ibid.*, *op. cit.* 등으로 표기하고 인용 쪽수만을 기입한다.

* 각주의 예:

- 동양서 단행본 : 이성호, 『교수방법론』 (서울: 학지사, 1999), p.120.
- 논문 : 소경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ICT 활용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39(1) (2001. 3), pp.197-215.
- 서양서 단행본 : Alexander W. Astin,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p.153.
- 논문 : R. Edmonds, “Programs of school impro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Leadership*, 40(1982), pp.20-50.

3) 내주(內註)의 경우: 내주란 본문 내용 안에 주가 위치하는 방식이므로 인용을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주는 원칙적으로 인용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참고사항이나 기타 독자의 이해를 위해 부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룰 때에는 별도로 각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주에서 인용하는 문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논문 뒤에 수록되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내주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이름이 본문에 나타나지 때에는 그 이름 뒤 괄호 안에 발행년도와 인용 쪽(페이지)을 기입한다. 발행년도와 인용 쪽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이름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때에는 해당부분 뒤 괄호 안에 저자이름과 발행년도, 인용 쪽을 표기한다. 저자이름 뒤에는 쉼표(,)를 하고 발행년도와 인용 쪽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다) 하나의 주 안에 여러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라) 서양인의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구별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만 표기한다.

마) 저자가 다수 인일 때에는 각주의 예를 따른다.

* 내주의 예:

- 본문에 저자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홍길동(2002: 25)은...

- 본문에 저자이름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이론은(홍길동, 2002: 25 ; McDonald: 187)...

3.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이란 ?

논문을 쓸 때 참고한 모든 문헌과 자료는 논문의 본문 뒤에, 즉 결론 다음에 쪽을 달리하여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논문 저자가 참고하였음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로도 이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 뒤에 쪽을 달리하여 제시한다.

2) 여러 나라의 문헌을 참고하였을 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서의 순으로 열거하며, 동양서는 한글로 표기된 저자이름의 자모순으로, 서양서는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3) 동일저자의 문헌이 다수일 때에는 출판년도순으로 배열하며, 같은 해에 출판된 문헌이 다수인 때에는 출판순서에 따라 출판년도 뒤에 출판월이나 a, b, c 등의 문자로 구분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단행본의 경우: 저자이름(출판년도). 책이름. 출판장소: 출판사이름.
예: 정범모(2001). 창의력: 그 심리·인물·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정기간행물 속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해당 쪽을 밝힐 것
예: 윤명희·김석우(2001). 열린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종단적 연구. 교육학연구, 39(2). 143-166.
- 학위논문의 경우:
예: 김난예(2000). 기독교 신앙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영문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기타 사항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름)
 - 가)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나) 논문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함.
- 예: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7-65.
Gold, N. C. (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4. 문단의 구성 및 글자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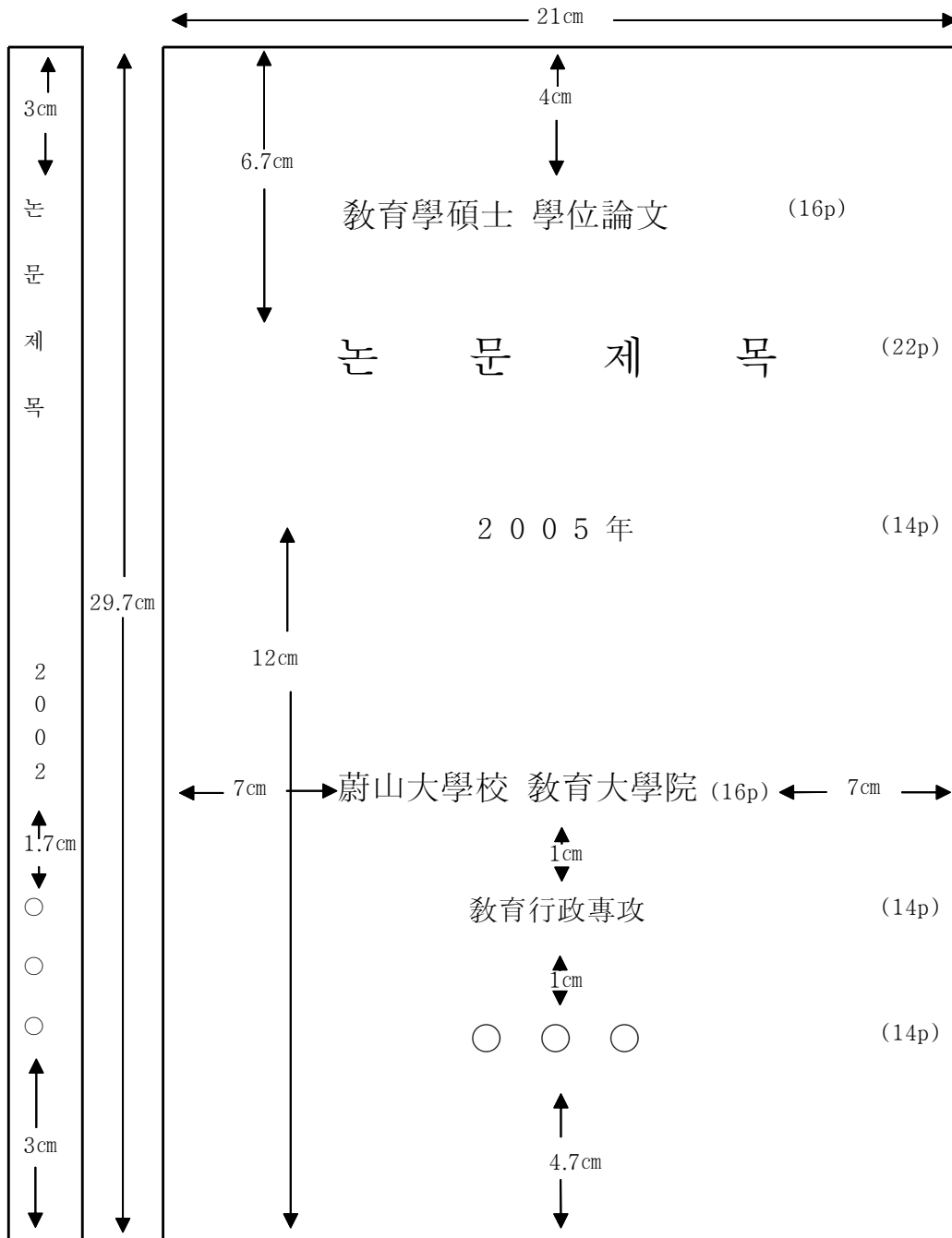
가. 문단의 구성

본문 1면에 24~28행으로 작성하며, 1행은 34~38자(한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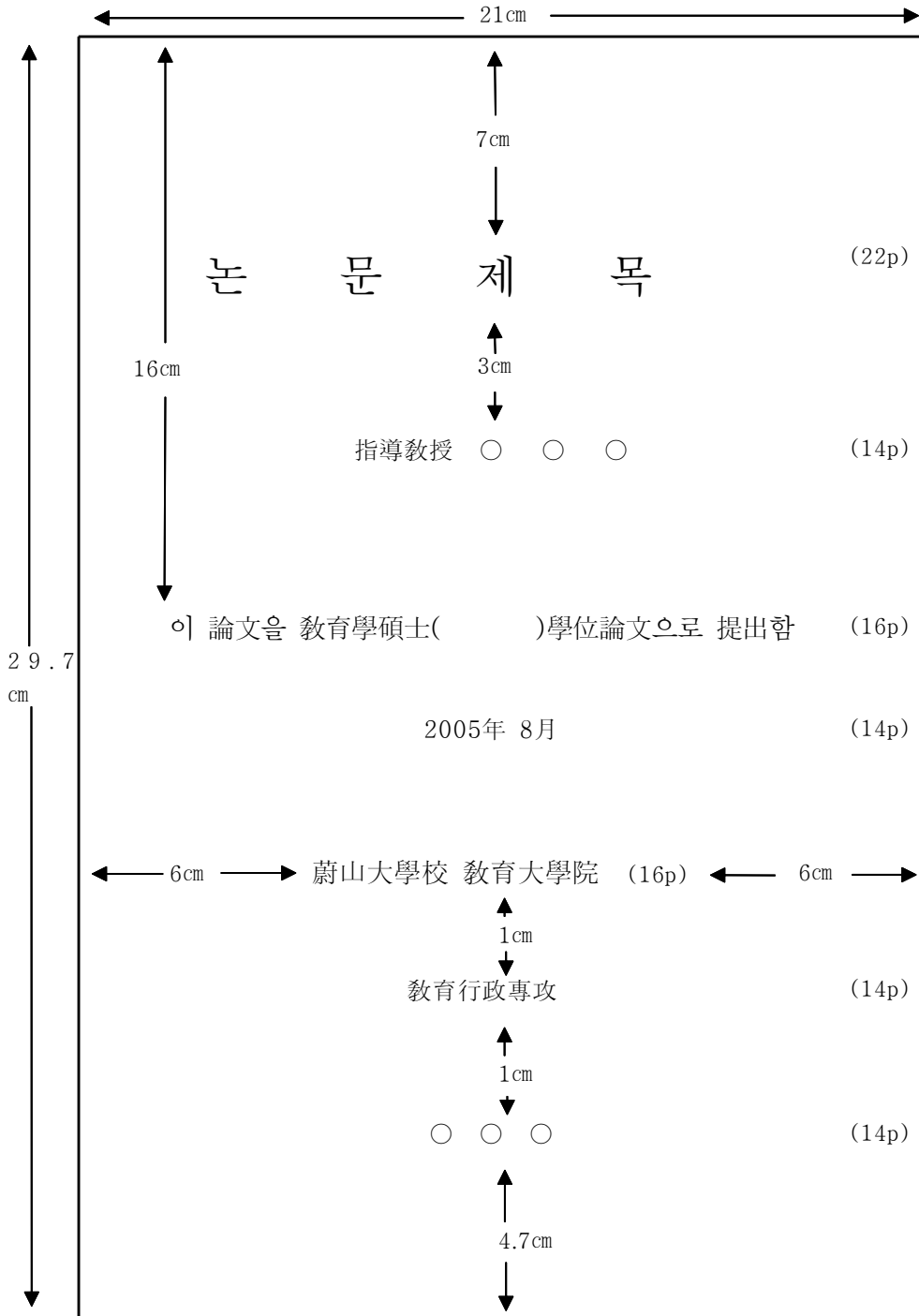
나. 글자의 속성

명조체 또는 신명조체로 작성하며, 글자의 크기는 본문은 10~11pt로 작성하고 각 주의 설명은 8~9pt로 기재한다.

서식 1 (표지)



서식 2 (속표지)



서식 3 (인준지)

